

영광군,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 '성과'

1.81명...전국평균 0.78명 2배 결혼·출산·청년세대 지원 효과 안정적 지역 정착 선제 대응도

영광군이 2022년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해 4년 연속 1위 자리를 굳히는 성과를 거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 사이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측정하는 통계를 말한다.

22일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출생아수는 24만9000명으로 역대 최저치로 나타난 가운데 영광군 합계출산율은 1.81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0.78명)의 두 배 이상

을 웃도는 높은 수치다.

영광군이 4년 연속 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한 비결로는 분야별 지원 정책의 복합적인 시너지 작용을 꼽는다.

결혼·출산 지원을 적극 장려하고 청년세대 지원과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 것이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2021년 전국 최초로 청년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해 청년을 신규로 채용하는 기업과 근로 청년에게 1인당 최대 2160만원을 3년간 지원하는 파격적인 청년 일자리 장려금 지원 정책을 추진했다. e-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유망기업을 적극 유치하고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관 연계 협력으로 관내 고등학교에

e-모빌리티학과를 개설해 관내 취업을 보장하는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집중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 고용률 74.3%를 달성하며 전남도 투자유치 평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는 주거 문제 해결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업무협약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300가구를 공급함으로써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주거 문제 해결에도 노력을 쏟았다.

결혼장려금 500만원 지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 대출 이자 지원, 임신부 교통카드 지원, 신생아 양육비 '첫째 500만원~여섯째 이상 최대 3500만원' 지

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등 50여 개의 지원 사업 추진도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지역 선순환 인구 정착을 이끌었다. 내년 상반기 준공하는 '청년창업·육아통합지원센터'는 청년층의 소통과 교류의 장을 형성하고 육아 거점 공간 마련으로 돌봄 공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자녀의 임신·출산·육아 과정은 단순히 한 가정만의 책임이 아닌 이웃과 지역사회의 관심과 안전한 사회망 구축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감 있는 정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영광 비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도윤 기자

음식점·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교육 곡성군 보건의료원

곡성군(군수 이상철) 보건의료원은 지난 16일 관내 일반음식점 영업주와 어린이집 원아를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염병 예방 교육은 일반음식점의 위생 교육과 어린이집 구강 보건 교육과 연계해 이뤄졌다.

군은 감염병 예방 교육을 통해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바른 청결 습관을 유도할 방침이다. 곡성=김대명 기자

장성군 군민행복시대 실현 박차 공약사업 이행률 26.7%

장성군이 민선 8기 공약사업을 목표보다 초과 집행해 군민행복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한다.

22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15일 김명신 장성부군수 주재 '공약사업 및 신속집행 보고회'를 갖고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민선 8기 장성군의 공약사업은 7개 분야 55건으로 △지역개발 11건 △교육 6건 △복지 9건 △문화·관광·체육 9건 △산업경제 8건 △농업 7건 △일반행정 5건으로 구성돼 있다. 완료된 사업은 6건으로 2월 기준 26.7% 공약 이행률을 기록 중이다.

지난해 장성군은 공약사업으로 '전국민 일상회복지원금' 30만원을 지급했다. '소상공인 코로나19극복지원금' 20만원 지급과 소상공인 활성화조직 설치도 빠르게 추진했다. 장성=유병현 기자

과수화상병 유입차단 총력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홍재)이 22일 영농철을 앞두고 과수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한 예찰과 예방활동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미발생지역이지만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방화곤충, 농작업자 등 감염경로가 다양한 화상병 발생을 막기 위해 타 지역으로부터의 유입을 막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배·사과 등에서 발생하는 과수화상병은 2015년 첫 발생을 시작으로 전남과 경남을 제외한 전국 6개 도 28개 시군에서 발생했고 지난해 전국 19개 시군 245건 108.2ha에서 발생해 전년에 비해 60% 감소했으나 발생지역이 확대되면서 지역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겨울철 궤양제거(12월-2월)를 시작으로 3회 약제방제(3-4월), 다발생기 집중예찰(5-7월) 시기에 맞춰 도-시군 합동예찰을 추진하고 시기별 농작업자와 과원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박관수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치료제가 없는 과수화상병은 인근 지역과 농가에 확산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시군농업기술센터가 추진하는 과수화상병 예방 및 약제 방제 관련 교육에 참여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관재 기자

담양 고향사랑기부금 1000명 돌파 10만원 기부 사례 가장 많아

담양에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기부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1일 제도 시행 이후 두 달 여 만에 거둔 성과다.

22일 담양군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자가 1000명을 돌파한 가운데 전액 세액 공제가 되는 10만원 기부 사례가 가장 많았고 100만 원 이상 고액 기부자도 늘고 있다. 답례품은 3만원 상당의 한과(약과)가 큰 인기를 끌었으며 떡갈비와 한우가 뒤를 이었다.

출향 인사들의 기부가 줄을 이었다. 담양 승일식당 자제들과 서재문 법무사가 고향인 담양에 기부했으며 퇴직 공무원인 송정원 전 건설과장, 임홍준 전 산림정원과장, 조계종 관음사 주지 허운 스님이 기부했다.

이병노 군수는 "담양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 드린다"며 "보내주신 기부금은 지역 발전과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에 소중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화순군, 취약계층 집수리 활동

화순읍행정복지센터와 화순읍 복지기동대가 지난 21일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를 방문

해 주택 곳곳에 미장작업, 페인트칠을 하고 변기를 교체하는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화순군 제공

나주시, 공영텃밭 확대 360구획 임대 분양

봉황옥산텃밭 신규 조성 내달 10일까지 분양 신청

나주시가 공영텃밭을 대규모로 임대 분양한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빛가람동 텃밭 3개 단지와 올해 새롭게 조성한 봉황옥산텃밭 1개 단지 등 공영텃밭 총 340구획을 내달 10일까지 시민에게 1년간 임대 분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영텃밭은 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을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공원과 유희 부지에 지난 2015년부터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에 3평 남짓한 텃밭은 원

하는 작물을 심고 가꾸며 수확의 결실을 맛볼 수 있어 도시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텃밭 분양 구획은 '빛가람공원 제1텃밭' (빛가람동 536번지) 190구획, '제2텃밭' (빛가람동 831번지) 30구획, '제3텃밭' (빛가람동 22-1번지) 60구획, '봉황옥산텃밭' (봉황면 유곡리 980-3) 60구획이다.

1구획 당 면적은 9.9㎡(약 3평) 내외로 가구당 1구획을 1년 간 분양하며 빛가람공원텃밭은 5만원, 봉황옥산텃밭은 4만원에 분양한다.

신청은 나주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내달 10일까지 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온라인 또는 QR코드 인식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텃밭 배정은 온라인 추첨으로 진행되며 3대 가족이 참여하는 신청자는 분양 우선권을 부여한다.

나주시는 텃밭운영단체인 내요클로버 영농조합법인'과 오는 4월1일 개장식을 갖고 모종 나눔 행사를 열 예정이다.

텃밭 작물 재배에 필요한 농기구를 비롯해 친환경농법 교육과 공동체 행사도 연중 지원한다.

조성은 나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영텃밭이 농업을 이해하고 가족, 주민들간 소통과 치유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나주=조대봉·박승엽 기자

전문 임업인 양성 과정 운영 전남산림자원연구소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는 산약초 재배 교육을 비롯해 9개 과정을 개설하고 전문 임업인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11월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교육은 임업후계자 교육 이수 과정, 자격증반, 지능·실무교육, 의무교육으로 구분해 임업 소득사업 수요에 따라 맞춤형 교육으로 구성했다.

임업후계자 교육 이수 과정은 귀산촌 아카데미, 산림버섯 재배기술 등 5개 과정으로 이뤄졌다.

자격증반은 버섯종균기능사 실기교육을 실시하며 기능·실무교육은 조경수 전정관리, 임산물 활용 가공체험 교실로 운영된다. 의무교육은 임업직불제 양성과정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40시간 미만 교육 이수 실적이 필요한 임업인에 임업후계자 보수교육과 실무능력을 기르기 위한 임산물 활용 가공 체험 교실과 조경수 전정관리 교육을 신규로 편성해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귀산촌인 등 임업 분야에 관심있는 도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산림자원연구소 누리집 모집공고를 참고하거나 전화(061-338-4266)로 문의하면 된다. 박간재 기자

함평군,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개장 순항

3월까지 운영자 선정 입찰

함평군이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개장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함평군은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2월중 실시하고 3월 말까지 입찰서를 접수받겠다고 22일 밝혔다.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다중이용시설 임시 폐쇄조치에 따라 지난 3년간 해수찜



치유센터 운영을 보류해왔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운영사업자 선정 등 관련 행정절차를

재개하고 오는 6월중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는 함평읍 석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54억원을 투입, 지상 2층, 연면적 1,122㎡ 규모로 건립됐다. 시설은 1층 카페 및 편의점, 2층 해수탕(8실), 사우나 등을 갖추고 있어 힐링과 휴양 공간으로 관심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돌머리 해수찜 치유센터가 지역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신재현 기자